

금호타이어, '2020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드라이버·팀 통합 우승



엑스타레이싱팀 선수들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가 '2020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 클래스에서 드라이버와 팀 모두 시즌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시즌 결과는 2016년 드라이버, 팀 종합우승 이후 4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시즌 최종전인 8라운드에서 팀의 에이스이자 만행인 정의철 선수가 2위를 기록하며 팀에 우승 포인트를 안겼고 개인적으로도 누적 점수 1위로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에 등극했다. 2019년 처음 6000 클래스에 데뷔한 신예 듀오 노동기, 이정우 선수도 전날 열린 7라운드에서 1, 2위 원투 피니시로 포디엄을 장식해 팀의 시즌 우승을 도왔다. 금호타이어의 우승 행진은 4라운드부터 시작됐다. 금호타이어 장착 팀들은 4라운드 예선에서부터 선두권을 휩쓸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준퍼티드레이싱의 황진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시즌 중후반 금호타이어의 돌풍을 예고했다. 5, 6라운드부터는 엑스타레이싱팀이 경기를 주름잡기 시작했다. 노동기, 이정우 선수가 원투 피니시로 포문을 열었고 정의철 선수가 6라운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우승까지 예고했다.

7, 8라운드는 선두권 선수는 누구나 시즌 챔피언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점수 차가 크지 않았다. 팀 포인트 역시 선수 개인의 활약뿐 아니라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였다. 경기 감각이 최고조에 올라있던 엑스타레이싱팀으로서는 6라운드에서 많은 핸디캡 위

이트를 부여받은 정의철 선수를 7라운드 포인트에서 제외함으로써 8라운드에 승부를 걸었다. 그리고 마치 짜인 각본처럼 두 팀원인 노동기, 이정우 선수가 7라운드 포디엄을 휩쓸며 완벽한 전략의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

엑스타레이싱팀의 시즌 우승은 흡사 모기업인 금호타이어의 실적과도 매우 닮아 있어 더 눈에 띈다.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침체로 1, 2분기 실적이 감소했으나 3분기 들어 2019년 동기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실적을 회복했다. 특히 대내외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3년째 국내 판매 1위를 당당히 지켜내는 한편, 고객만족도에서도 16년 연속 1위를 이어감으로써 시장의 평가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대로면 엑스타레이싱팀처럼 올 한해 성공적인 마무리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어 업체들은 모터스포츠의 제품 공급과 대회 성적을 통해 타이어 기술력을 입증받는다. 레이싱 타이어는 200~300km를 넘나드는 속도와 압력을 견디며 급제동과 급가속, 급커브 등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고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다시 한번 기술 명가의 이름을 휘날리며 지난해 창립 60주년에 발표한 2025년 글로벌 10위 재진입을 위한 '비전 2025'의 기틀을 마련했다. ①